

필리핀에 뿌리내린 한국불교

불국사 포교당 유일한 사찰 봉사·이웃돕기로 전법 발판

법관 스님, 포교책자 제작위해 일시 귀국

“필리핀에 한국불교를 뿌리내리기까지 힘든 점도 많았지만 한국에서 모셔간 불상을 끌어안고 우리는 교민들을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2000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 ‘대한민국 경주 불국사 포교당’을 개원한 법관 스님은 자비봉사와 구호활동으로 현지에 한국불교 뿌리를 내렸다. 법관 스님이 처음 필리핀과 인연이 된 것은 88년. 그때 스님은 카톨릭과 기독교 인구가 대부분인 필리핀에 한국불교를 알리고 싶다고 발원했다. 그리고 10여 년 후인 2000년 스님은 마닐라에 포교당을 열고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한국 교회만도 100여 개에 달하는 필리핀에 한국 사찰은 스님이 운영하는 불국사 포교당 단 한 곳뿐이다.

“처음 필리핀에서 포교 시작했을 때 기독교인들로부터 협박도 받았고, 첫째 백중법

회 때는 혼자 법회를 했다”고 법관 스님은 초창기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협박을 받을 때면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들을 포용하면 언젠가는 불법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원력 하나로 버텼다. 교민신문에 광고를 내고 스님이 직접 전단지 돌리며 한국사찰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하자 법회 참석자는

초기엔 타종교서 협박·혼자 법회 봉행 주민 생활 열악... 생활용품 보내줬으면

늘기 시작했다. 매주 일요일과 초하루, 지장재일에 한국식으로 예불을 진행하는 법관 스님은 현재 70여명의 신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봉사활동과 불우이웃돕기를 벌이며



◊법관 스님이 91년 화산 폭발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떠나뉘보를 방문,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처님 법 전하기에 주력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은 마닐라 알라방에 있는 열시 가계 재할원을 방문, 정신지체아들을 돌보고, 매월 첫째 월요일에는 91년 화산 대폭발

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좋은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 봉사활동 외에 매년 8월에는 현지인과 교민들이 함께 하는 백중법회를 열어 불우이웃 108가구를 선정, 쌀, 옷, 빵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연말 크리스마스에는 타종교인들을 위한 불우이웃돕기운동을 한다. 이 같은 필리핀 불국사 포교당의 봉사활동과 이웃과 함께 하는 법회는 마닐라 대학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법관 스님은 “마닐라 근교에 사찰을 지어 불법을 널리 퍼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전화: 필리핀-847-803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일연 삼국유사 문화제 개최

인각사, 청소년 백일장·학술세미나 행사

삼국유사의 산실 경북 군위군 인각사(주지 상인)가 제3회 일연 삼국유사 문화제를 6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3개월간 펼친다.

인각사와 일연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 3회 일연 삼국유사 문화제는 6월 21일 전국 초중고생 청소년 백일장, 7월 12일 삼국유사 국보지정 기념 산사음악회, 8월 5일 일연성사 제714주기 추모 대례제와 삼국유사

(장덕반) 영인본 간행 및 봉정사, 9월 4일 일연 삼국유사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7월 15일 마감하는 삼국유사 캐리커 공모전 시상식이 8월 5일 열린다.

인각사 주지 상인스님은 “일연 삼국유사 문화제를 통해 우리 역사와 민족의 얼을 지키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의성노인복지관 1주년 포크댄스 등 축하공연

경북 의성군 노인복지관(관장 탄하이)이 개관1주년을 맞아 11일 기념식을 가졌다. 의성 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은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법요식과 노인복지 공공자 표창, 2부 복지관 소속 노인화장사의 포크댄스와 장구 연주, 영주장애인복지관 수화공연, 포항 관음사 진여합창단과 얼뿌리 민속놀이단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박원구 기자

도원 스님 초청 수요법회

불교TV 대구지사 법당 무상사가 11일 조계종 원로이자 도원 스님을 초청 첫 수요 대중법회를 열었다. 도원 스님은 “모든 불자들은 망상과 집착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수행정진해야 한다”고 법론했다. 무상사는 6월 25일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7월 9일 파계사 영산원장 철우스님을 초청, 매주 수요일 법회를 개최한다. 문의 (053)527-0108 박원구 기자

스님·수녀 몽골초원 달렸다

국제우정마라톤대회 나란히 참가



스님과 수녀가 몽골의 광활한 초원을 달렸다. 사단법인 한·몽 문화교류진흥원(대구 수성구 범어동)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에서 개최한 제1회 몽골 국제우정마라톤대회에 한국의 스님과 수녀가 나란히 참가해 눈길

을 끌었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한몽 수교 13주년을 기념하고 2003 몽골 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과 몽골의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열렸으며, 대구 능업선원 삼현스님, 백종사 승범스님, 현승스님과 함께 대구 파타마병원 수녀 3명이 참가했다.

이번 마라톤 대회에서 몽골정부 훈장을 받은 삼현 스님은 “천주교나 기독교 등 타 종교는 이미 어려울 전부터 몽골에 진출해 각종 교육사업과 의료지원 등을 벌여오고 있는데 불교는 아직 이렇다할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교계에서도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구 기자

경주시민들이 문화재 보존보다는 관광 사업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지역정책연구소(소장 오영석교수, 이하 연구소)가 학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대학생 100명을 포함 경주시민 520명을 대상으

문화재 보존보다 관광개발 더 희망

경주시민들 대상 조사

로 5월 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연구소측은 “문화재 개발정향 평균값이 5.52로 문화재 보존정향 평균값 4.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경주시민들이 관광자원의 보존보다는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원구 기자



한미음선원 포항지원 상량식

한미음선원 포항지원(지원장 혜문)이 6일 법당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은 한미음선원 주지 혜원스님, 한미음선원 전국 각 지원장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 반야심경, 상량의례 순으로 진행됐다.

포항지원 지원장 혜문스님은 상량문 봉독에서 “본래 공하여 텅 빈 것이 법당의 참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미음선원 포항지원 법당은 포항시 우현동 500여 평의 대지에 연면적 392평,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천재지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초산유원지 규탄 대규모 법회

통도사 영축환경위, 공사 즉각중단 촉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영축환경위원회는 27일 양산시청앞에서 위락시설단지인 초산유원지 조성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규탄법회를 연다. 영축산 환경위원회는 13일 회의

를 열어 수행환경 파괴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대규모 위락시설인 초산유원지 건립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고 27일 현인스님, 신도회, 청년회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법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통도사 기획국장 사공스님은 “이미 진행된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즉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의 허가만 내주지 않는다면 공사를 허용하겠다는 양보안을 내놓았으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양산시는 “이미 음식점과 숙박시설 허가가 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며 기존안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초산유원지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천미희 기자

월드컵대회 기념제작

만다라괘불 회향법회

통도사 정보박물관(관장 범하)이 25일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을 기념해 제작한 만다라괘불 조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만다라 괘불은 77일간 일반인 친견과 증명 절차를 거친 뒤, 점안식과 북장봉안 법회는 8월 15일 진행된다. 문의(055)382-1001 천미희 기자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 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에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 전생퇴행 파동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 원격제령 파동명상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사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 **태이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6월 2째주, 4째주

-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동방명상전생연구소

◆ 문의처: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www.dongbang21.co.kr

「동방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많은 스님, 법사님들이 파동명상을 통하여 경험하신 신묘하고 놀라운 경험담이 너무나 많지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 옮기지 못하고 작고 가벼운 경험담만 허락을 받아 옮기고 있습니다.

◆ 이 코너는 저희 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스님·법사님들의 놀라운 경험담을 싣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중에서 토굴 수행을 하시고 계신 보명스님.

경기도 어느 산중에서 토굴 수행을 하시고 계신 보명 스님은 저희 연구소에서 수행하시던 이틀째 되던 날 새벽, 파동명상요법으로 유체이탈을 경험하게 되었다. 스님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공을 초월한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그 공간에서 스님은 평소 스님과 인연이 있던 신도들과 영적인 친견이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 남편의 미친듯한 심한 도박과 카드 빚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른 어느 신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되었는데 그 신도에게는 결혼 전후로 많은 중절로 인한 낙태령들의 원망이 사 무쳐 있었고 또한 그 신도의 남편은 전생에서 일제 때(1937년경)에 일제 알잡이 노릇을 하면서 죄없는 선량한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고 한다. 그때 너무나 원한에 사무치며 죽어갔던 여자 한 명(소복한 여자)의 영혼이 현생에서 그 남편에게 빙의(태중빙의)되어 그 집안을 몰락의 시간 속으로 휘몰아쳐 가고 있었다고 한다. 스님이 그 상태에서 의문으로 그 영혼들을 천도하고 제명하게 되었는데 그 후, 그 남편은 신기하게도 사람이 바뀌어 노름에 손을 끊고 새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